

# “새만금 투지진흥지구 공약 이행 세부 계획 내놓아야”

민주 김윤덕 의원,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새만금의 지부진한 사업 진행 속도와 미흡한 예산 저조한 기업 및 투자유치 실적 등을 두고 서로 핑퐁 게임하기 바쁜 중앙정부와 새만금청, 전북도의 무책임한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함께, 일사천리로 사업추진이 이뤄지고 있는 가덕도신공항 사업에 비해, 예타를 면제 받고도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한 ‘새만금신공항’ 사업의 더딘 속도가 비교되며, 전북과 새만금이 또다시 차별받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전주 시합)은 2일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먼저, “새만금 사업 1단계 목표가 72.7%였지만 지금까지 기본계획상 용지 매입은 43%정도에 불과한 수준인데다, 국제협력용지 매입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며 “1단계 기본계획에 필요했던 예산 13조2,000억 원에 크게 못 미치는 7조5,500억 원(58.7%)의 미흡한 예산과 기약도 기한도 없는 막연한 총 사업기간, 그리고 구체성 없이 최소한의 개발비용만 제시하고 있는 기본계획이 문제의 원인이다”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한, 투자유치(기업유치)가 쉽지하다는 지적에 대해 “새만금의 해외 투자실적 11건의 사업 중 60%



이상이 투자를 철회했고, 입주 계약을 ‘준비중’이거나 ‘건설중’인 기업을 제외하면 두 세곳의 기업체만 실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새만금청, 전북도는 서로 ‘유치’가 먼저인지 예산과 인프라가 먼저인지 문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원희룡 후보자가 제주도 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제주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입주기업의 요구지역, 투자유치 필요지역 등을 조세 감면하는 등 과감한 행정력을 보여주었던 것으로 안다”며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국내기업 법인세 감면 및 임대료 인하, 장기임대용지 조성 등 적극적인 기업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대한 세부적인 이행 계획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새만금이 갖는 개발 잠재력과 행정성, 절차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새만금신공항의 조기착

공과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야만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작년 2월 ‘가덕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토부에 ‘가덕도신공항건설추진단’까지 만들어지는 등 매우 빠른 추진 속도를 보이고 있는 가덕도신공항은 예상보다 빠른 목표달성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새만금신공항은 보통 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지난 2019년도에 면제받고도 5년이 지난뒤에야 착공을 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져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이미 폐도에 오른 사업인데다 토지보상비, 지장물 보상비, 별도의 도로교통망 개설 등이 필요한 여타 신공항보다도 적은 비용으로 착공과 개항을 앞당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힘의 논리와 표심법에 따른 전북 소외의 증거로 밖에 볼 수 없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윤덕 의원은 “새만금은 다양한 용도의 부지조성을 통해 민간 자본과 산업을 유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간적 시간적 거리를 단축하기 위한 공항의 보유 유무는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요소다”고 강조하며 새만금신공항 사업이 안정적으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후보자 스스로가 꼼꼼하게 챙기길 주문했다. /유호상 기자



지방선거, 30일 앞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30일 앞둔 2일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선거 홍보물을 정리하고 있다.

## “새만금을 농기계 산업 중심지로 육성”

민주 이원택 의원,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예타 통과 이끌어내

새만금 농생명용지 5공구 일원(김제 시 광활면) 30만평에 지능형 농기계의 성능시험 및 검·인증 지원하기 위한 테스트베드가 구축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이 지난달 29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된 이후 1년 8개월 만이다.

이번 예타 통과로 이르면 오는 2024년까지 농기계 검·인증 분석실 등을 갖춘 실증지원센터와 농농업·발농업용 농기계 실증부지가 약 30만평 규모로 구축될 예정이다.

농기계 완성차 및 부품 기술 성능·안전성 등에 대한 실증지원, 지능형 농기계 검인증 체계 개발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검인증 지원 농기계업체의 기술·제품 조기 상용화 지원을 위한 농기계 빅데이터 활용 지



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소식을 밝히며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의 예타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던 송하진 전북도지사과 박준배 김제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을 통해 새만금을 농기계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사업의 속도감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도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무상지원

전북도가 올해 5월부터 장애인의 고속도로 이용 안전운전 및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무상 지원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도입 이전에는 통행료 50%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하이패스 차료가 아닌 일반차료를 이용해 매번 통합복지카드를 제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도는 지난 2019년 한국도로공

사 전북본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 3년간 도내 장애인에게 하이패스 단말기 3,234대를 무상 보급했다.

올해도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전북도에 주소지가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인통합복지카드(통행료 할인카드) 소지자다. /유호상 기자

새만금청, 국제 전기차 박람회서 투자유치 활동

오늘 서귀포서 엑스포 개최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3일부터 6일까지 제주 서귀포시 국제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제8회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에 참가해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전세계 50여 개국에서 200여 기업이 참가해 전기차 관련 전시·홍보를 통해 최신 기술과 정보를 교류하는 국제행사이다.

새만금개발청은 한국농어촌공사와 공동으로 행사장 내 홍보관을 운영해 미래차 협력지구,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등 새만금의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소개한다.

또한, 현장에서 새만금 투자에 관심을 표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투자상담과 함께 임원급 면담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새만금에 전기차 전장부품, 이차전지 소재 기업들의 집적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박람회는 관련 기업들에 새만금 미래차 협력지구”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호열 새만금개발청 개발사업국장은 “친환경 미래차 산업의 핵심기지로 개발 중인 새만금 산단의 투자기회와 기업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우수한 투자여건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국힘 도당 지선 후보자 최고위원회 승인 완료

도지사 1·기초단체장 4명 등 도내 출마 후보자 총 29명

국민의힘은 2일 제77차 최고위원회 의에서 제8회 지방선거 전북지역 출마 후보자 추천 승인을 의결했다.

이번 국민의힘 출신으로 제8회 지방선거 전북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총 29명으로, 전북도지사 1명, 기초단체장 4명, 지역구 기초의원 13명, 광역의원 비례대표 3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8명 등이다.

지방선거 비례대표 후보자들은 전북

공천관리위원회의 서류·면접 심사 후 공직후보자 기초지역평가(PPAT)를 응시해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받았고, 단독 접수 지역의 경우 단수공천, 경선지역에 대해서는 서류·면접 심사, 책임당원 선거인단 투표, PPAT 접수 가산점 등을 취합해 최종 비례대표 순번을 결정했다.

청년 출마자는 총 8명이며, 유은혜(84년생) 완주군의원 비례대표 후보, 최용건(90년생), 신승욱(96년생), 정진화(81년생), 한상욱(88년생) 전주시의원 후보, 김지현(92년생) 남원시의원 후보이다. 여성 출마자는 16명이며, 조

배숙 전북도지사 후보를 비롯해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3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8명, 지역구 기초의원 4명이다.

한편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현재 공천이 확정된 후보자 외에도 남원시장, 지역구 광역의원, 임실군의원, 고창군의원 등 출마를 고민하는 인사와의 출마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당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쌓아놓은 전북의 정치적 패를 청산하고, 실질적인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